

부문별 주요 기사

4월 1일~4월 30일

대내경제
대외경제

부문별 주요 기사

4월 1일~4월 30일

대내경제 116

<공식경제>

북한 휘발유 부족으로 가격 폭등 및 공급 제한

<북한의 건설>

김정은 정권, 무분별한 지방건설 지시... 전시물자까지 동원

대외경제 117

<대북제재>

국제사회, 강화하는 대북제재

<북중관계>

中 훈춘 통상구에 통관시설 신설

북핵 도발에도 中 단둥·선양 신규기업 급증...동북진흥책 영향

中 대북수출 지속 불구 수입은 급감, 北 북한산 석탄 對中 수출 전무

<북러관계>

러시아, 북한에 극동지역 비자 간소화

라진-블라디보스토크 여객선 취항...북-연해주 경제협력 지속

<언론에 소개된 대북지원>

대내경제

<공식경제>

RFA(4.26, 4.27)

북한 휘발유 부족으로 가격 폭등 및 공급 제한

최근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에 대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의 영향으로 북한 당국이 운영하는 주유소가 문을 닫거나 제한판매를 시행한다고 알려짐. 작업을 위한 차량을 제외하고는 차 한대 당 20리터만 판매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으며, 일부 지역의 휘발유 구입권의 가격이 80퍼센트 이상 폭등하였음. 그러나 일부지역을 제외하고 민간 석유 값이 상당부분 안정세를 유지할 수 있는 것은 북한 당국의 석유 밀수와 중국의 대북 석유 수출이라는 분석이 있음.

<북한의 건설>

VOA(4.12), RFA(4.19)

김정은 정권, 무분별한 지방건설 지시... 전시들자까지 동원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여명거리 준공식에 이어 각 도소재지들에도 규모가 큰 아파트들을 건설을 지시함. 그러나 전시에비물자로 보관 중이던 시멘트와 철강재들을 사용하여 건설을 하라는 것이어서 논란이 많음. 최근 몇 년째 평양에서 대형 건설 공사들이 진행되고 있음. 이는 북한은 대북제재에 굴복하지 않고 핵무기 개발과 경제건설을 동시에 추진하는 이른바 '병진노선'을 과시하려는 목적으로 보임. 그러나 많은 전문가들은 대내외 정세가 개선 않은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무분별한 건설은 민생불안을 야기하고 장기적으로도 북한경제에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함.

대외경제

<대북제재>

RFA(4.7, 4.11), VOA(4.10)

국제사회, 강화하는 대북제재

최근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한층 더 강해지고 있음. 미국 재무부는 북한인과 북한기관에 독자 제재를 추가하였으며, 유럽연합 또한 독자적인 대북제재를 단행한다고 밝혔음. 로이터와 AFP통신은 유럽연합이 2006년도부터 대북제재를 단행하기 시작했으며 그간 북한의 지속적인 도발에 따라 그 제재 수위도 계속 높아졌다고 보도함. 그러나 전문가들은 서방국가의 대북압박은 정치적, 상징적 조치이며 실질적인 대북제재의 열쇠는 중국이 쥐고 있다는 의견을 보임.

<북중관계>

매일경제 (4.12), KBS News (4.18), RFA (4.26)

중훈춘 통상구에 통관시설 신설

최근 북중 접경의 주요 무역 통로인 중국 지린성 훈춘시의 취안허 통상구에 연간 200만톤의 물동량을 처리할 수 있는 통관시설이 내년 하반기 준공예정으로 신축공사가 시작되었음. 취안허통상구는 연변자치주 훈춘에서 북한 나선경제특구와 나진항으로 진입하는 주요 통로이며, 신두만강대교 완공 이후 늘어난 무역량의 통관수요를 위해 신축하게 된 것으로 알려짐.

북핵 도발에도 中 단둥·선양 신규기업 급증 ... 동북진흥책 영향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에도 불구하고, 북중 접경지역인 랴오닝성의 1분기 신규기업 등록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46.2%(3만개 기업) 증가하였음. 그 중에서 단둥, 선양, 번시 등 3개 도시에서의 변화가 가장 크게 나타났음. 중국 인민망은 북중교역 거점인 단둥을 비롯해 접경도시들이 북한 핵위협 등으로 경제침체에 시달렸으나, 중앙 정부의 '일대일로'(一帶一路:육상·해상 실크로드) 정책과 새 동북진흥전략 본격 추진에 따른 영향인 것으로 판단하였음.

中 대북수출 지속 불구 수입은 급감, 北 북한산 석탄 對중 수출 전무

지난 3월 한 달 동안 북한에서 중국으로 들어간 수입규모는 2월에 비해 35퍼센트 정도로 중국의 북한산 수입품 유입이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남. 특히 그동안 북한의 대외 수출에서 40%의 비중을 차지했던 석탄의 對중 수출은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음.

반면 전자제품과 부품, 플라스틱 제품, 섬유제품 등 대북수출량은 꾸준한 것으로 조사되었음.

<북러관계>

NEWSIS(4.19), VOA(4.24)

러시아, 북한에 극동지역 비자 간소화

러시아 정부가 극동 지역 블라디보스토크를 통해 입국하는 북한 주민의 입국사증(비자)를 사실상 면제할 계획을 밝혔음. 북한국적외국인들에게 기존 비자 대신 전자비자(e-VISA)를 발급하며, 오는 8월1일부터 인터넷에서 신청정보를 기재하고 나흘 안에 30일 간 유효한 전자 입국사증을 발급받게 됨. 이는 러시아에 북한 노동자들이 많이 진출해 있는 것을 고려하여 북한이 러시아 측에 비자 없이 상대방 국가를 방문할 수 있도록 제안한 결과로 알려짐.

라진-블라디보스토크 여객선 취항... 북-연해주 경제협력 지속

러시아 해운사 인베스트로이트레스트사 관계자는 라진항과 블라디보스토크를 연결하는 정기 여객화물선이 5월 8일부터 운항을 시작한다고 발표하였음. 이 여객화물선은 중국 관광객과 연해주에서 일하는 북한 노동자들이 승객 대부분을 차지할 것이라고 알려져 있음. 최근 러시아 정부는 발급 과정이 간편한 전자비자를 북한에 발급 주는 등 북한과 다양한 협력 사업을 진행하고 있음. 특히 라진항 이용 사업과 북한 노동자 수입을 대북경협외 두 축으로 삼고 있다고 알려짐.

<언론에 소개된 대북지원>

RFA(4.4, 4.14, 4.17, 4.26)

아래 표는 4월 한 달 간 국내언론에 소개된 대북지원 소식 목록임.

국가명 (단체)	지원일	지원품	지원액 혹은 지원량	비고
캐나다 정부	2017년(계획)	지원금	110만 달러 상당	유엔세계식량계획(WFP)을 통해 지원. '어린이와 여성을 위한 영양 지원과 재난 감소를 위한 지역 사회 역량 강화 지원 사업
프랑스 정부	2017년(계획)	지원금	10만 달러	유엔세계식량계획(WFP)을 통해 지원
유엔중앙긴급구호기금 (CERF)	2017년 (계획)	지원금	260만달러 상당	만성적 급성영양실조 어린이와 산모를 위한 영양지원 사업 지원
미션 이스트 (덴마크 민간구호 단체)	2016년 말~ 최근(4월로 추정)	수도 시설 개선 사업	5만 6,000달러 상당	지난해 태풍 피해 지역인 함경북도 농촌 지역의 상하수도 시설 개선하는 지원 활동

정리 | KDI 북한경제연구부 | uj_lee@kdi.re.kr

기사 원문 리스트

- [2017.4.4] 대북제재 모금 난항 속 유엔 260만불 지원 (RFA)
- [2017.4.7] 유럽연합, 독자 대북 추가제재 단행 (RFA)
- [2017.4.10] '대북 제재, 외화벌이 등 6개분야 성과' (VOA)
- [2017.4.11] 중, 대북 금융제재 시동 (RFA)
- [2017.4.12] 中 훈춘 통상구에 통관시설 신설...대북제재 속 북주교역 기지개? (매일경제)
- [2017.4.12] “평양 대규모 건설 공사, 경제 재건에 근본적 한계” (VOA)
- [2017.4.14] 캐나다, WFP통해 약 110만달러 대북 식량지원 (RFA)
- [2017.4.18] 북핵 도발에도 中 단둥·선양 신규기업 급증...“동북진흥책 영향” (KBS News)
- [2017.4.19] 러시아, 북한 등 18개국에 극동지역 비자 간소화 (NEWSIS)
- [2017.4.19] 덴마크 NGO, 북 함경북도 수도 개선지원 (RFA)
- [2017.4.19] 김정은, 전시물자로 지방건설 지시 (RFA)
- [2017.4.24] 라진-블라디보스토크 여객선 취항...북-연해주 경제협력 지속 (VOA)
- [2017.4.26] 중국, 대북수출 지속 불구 수입은 급감 (RFA)
- [2017.4.26] 북, 휘발유 부족으로 차 한대 당 20리터로 제한 (RFA)
- [2017.4.26] 프랑스, 사상 첫 WFP통한 대북 식량지원 (RFA)
- [2017.4.27] “北, 차 한 대당 보름동안 20ℓ로 주유 제한...휴업 주유소 속출” (RFA)